

도심 숲 철새 분변 악취...주민고통 5년째

광주 서구 농성동 녹지 철새 수백마리 날아들어

인근 초등학교·주민, 깃털·소음 등 시달려

숲 소유주들 관리 '나 몰라라'...서구, 민원 '골머리'

도심 숲에 백로가 날아들어 주민 수천명이 분변 냄새와 깃털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숲 소유주에게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광주시 서구가 광천초교 옆 녹지공간에서 여름을 난 철새가 월동지로 떠난 틈을 타 구청 예산을 들여 나뭇가지를 치려고 숲 소유주를 설득 중인 가운데 제기된 의문이다.

숲 주인이 관리를 소홀히 해 철새가 내려앉으면서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소유주는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녹지공간의 소유주가 전직 부장판사, 대학교수, 변호사 등이 포진한 유력 가문이라는 서구가 지나치게 민원 해소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구는 여름 철새의 집단 서식처이자 번식지로 자리 잡아 매년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농성동 광천초교 옆 녹지공간(1만7000㎡)에 대한 정비사업을 위해 소유주와 협상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서구는 녹지공간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 수백 그루 중 철새가 즐겨 찾는 향나무 등 50그루가량을 가지치기하려고 숲 주인 A씨를 설득 중이다.

이 공간에는 백로와 왜가리 등 300여마리의 철새가 지난 2011년 봄부터 날아들고 있다. 주민들은 처음엔 길조인 백로가 날아들자 환영했다. 하지만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날아드는 수백마리의 철새가 새끼를 낳고 기르는 동안 쏟아내는 분변과 날리는 깃털, 그치지 않는 울음소리 때문에 주민들은 숲 주인과 서구청, 광주시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3년째 이어지자 서구 관계자가 숲 주인을 찾아가 관리를 요청했지만 숲 주인 측은 "사유재산이고 새가 절로 날아드는데 어쩌라는 말이나. 꼭 가지치기를 하려거든 나무 한 그루당

■광주 농성동 도심 녹지숲



300만원씩 주고 구청이 구입해서 잘라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던 중 광천초교 학생들이 "숲에 날아든 새 때문에 숨쉬기도 곤란하고 학교 다니기가 너무 힘들다"는 손 편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인근 상인과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자 결국엔 "구청과 주민들이 가지치기를 한다면 말리지는 않겠다"는 식으로 누그러졌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애초 수목원으로 관리될 땐 문제가 없다가 최근 나무가 우거지면서 철새가 날아들어 주민 피해로 이어졌다. 집, 수백그루의 나무 중 일부 나무만 가지치기를 할 경우 울음처럼 철새가 자리만 살짝 옮겨 날아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서구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철새가 날아드는 숲이 판사 출신의 변호사, 대학교수, 미국 변호사 등의 유력 가문 가족들 소유인 데다 숲 소유주 가운데서 전직 총리, 국회의원도 있는 탓에 서구가 제 목숨을 내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해당 숲 소유주 측은 "우리 숲은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는 효과도 있다. 새들이 절로 날아드는 것을 어쩌라는 말이나"고 반문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5일 오전 해남 두륜산에서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케이블카가 멈춰서자 출동한 소방관들이 소형원장기를 이용해 승객들을 구출하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멈춰...승객 49명 3시간 공포

누전 원인...인명피해 없어

해남군의 명물인 두륜산 케이블카가 운행 중 갑자기 멈춰 승객 49명이 최장 3시간여 동안 허공에서 두려움에 떨다가 구조됐다. 5일 오전 9시 54분께 해남군 삼산면 두륜산 케이블카 상하행선이 운행 중 갑자기 멈춰다.

두륜산 고개봉(해발 638m)과 구림리까지 1천600m 구간을 운행하는 케이블카 상행선에는 5명이, 하행선에는 44명이 탑승했으며 각각 역사로부터 400m, 230m 지점에서 멈춰다. 케이블카가 멈춰 서자 군인 200여명과 해남군청 공무원, 소방대원 등 300여명이 동원돼 케이블카가 멈춘 지점 지상에서 구조작업을 벌였다.

구조 당국은 탑승객들이 케이블카 안에 설치된 소형 완강기를 통해 한 명씩 차례로 지면으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2시간여 만인 11시 45분께 승객 47명과 동승했던 안내요원 1명을 구조했다. 소방대원들은 이어 헬기로 케이블카에 접근, 낮 12시 53분 남은 안내요원 1명도 구조를 완료했다. 탑승객 중 1명이 케이블카가 갑자기 멈추

는 충격 때문에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나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남군 등에 따르면 전기 공급 장치에 쥐가 들어가 누전이 발생, 전기 공급이 자동 차단되면서 케이블카가 멈춘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복구작업이 진행 중이다. 탑승객 대부분은 노인들로 이날 단풍구경차 두륜산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권은희 "거짓 증언 없었다"

위증 혐의 첫 재판... "국민참여재판 원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권 의원은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고 싶다. 사실상 많은 증인을 통해 사건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는데, 재판부가 증인 수를 참여재판 방식과 잘 조화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의원의 변호인이 재판에 부를 증인 수가 워낙 많아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내자 재판부는 "변호인과 협의해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곤란한 지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재판 절차상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권 의원은 이날 작성한 듯 법정에 나와 혐의를 반박했다. 사법고시 출신으로 경찰 특채 전 잠시 변호사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그는 법리 해석을 내세우며 무죄를 주장했다. /연합뉴스

보험사기 한마을 주민 20명 적발

병원 입·퇴원 반복 보험금 40여억원 부당 수령

보험사기로 수십억원을 챙긴 같은 동네 주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 상당수는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경찰서는 허위로 병원에 입원해 고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최모(여·40)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임모(여·54)씨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렸다. 최씨 등은 2008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광주·전남 49개 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며 27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4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 9년간 23개 병원에 800일간 입원, 9개 보험회사로부터 3억4300여만원의 보험금을 불법으로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임을 알면서도 입원시켜 사실상 보험사기를 도운 병원장 최모(66)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했고, 달이안 황모(여·51)씨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렸다. 최씨 등은 2008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광주·전남 49개 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며 27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4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 9년간 23개 병원에 800일간 입원, 9개 보험회사로부터 3억4300여만원의 보험금을 불법으로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검, 금품·흑색선전 등 3대 선거사범 엄단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해수)은 내년 4월13일 치르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6개월 앞두고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 대처 방안 등이 논의됐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16일부터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을 가동하고, '지역별 전담검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선고사범 신고는 광주지검 (062-231-4615, 홈페이지 http://spo.go.kr/gwangju)로 하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

과징금 4080만원 나오자 마음 바뀐 고깃집 주인 행정심판 청구



○~식중독균 검출로 받게 될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겠다. 광주시의 대형 고깃집 업주가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청구. ○~5일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상무지구에서 한우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여름 보건당국의 검사결과 자신의 식당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자 영업정지 1개월 대신 과징금 4080만원을 납부하기로 해놓고선 뒤늦게 과징금 액수가 과

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 ○~서구는 "지난 7월 말 생고기를 먹은 손님 2명이 식중독 증세를 호소하자 역학검사와 청문절차를 거쳐 식품위생법이 정한 매출액 기준(한달 매출 2억 5000만원 이상)대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업주가 일단 영업정지만은 피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과징금을 택했다가 막상 납부하려니가 많은 것 같아 심판을 청구한 것 같다"고 설명.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7층 상가건물 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7층 건물 (사우나 건물)

1층 (커피숍 입점 완료)
2층~5층 (사우나,주택)
6층~7층 (설계사 건설사)

월 수익 (1,020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2,000만)
(보 1억5천, 용 6억)

매가 17억

상가원룸 매매

〈전대 정문,후문 2분!〉

(대지-180평, 건물-470평)

1층 (상가,1칸)
2층~3층 (룸10개)
4층 (주택)

월 수익 (450만)
(보 4,000만, 용 1억)

매가 7억

법률경매

1. 북구 오룡동 (근린상가주택) (토 500평,건 904평) 감정가 35억4천 → 28억3천 (첨단지구 삼성전자 앞) (1층상가, 120평-2~7층 룬 54개-8층, 주택겸사무실)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실전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 경매기본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직원구함 (남,여직원) 경매, 부동산 배우실분 경매컨설팅 교육
2. 서구 농성동 (토 86평, 건 263평) 감정가 5억7천 → 최저가 3억2천 → 지하 (국악연습실) 1층(상가) 2층~3층 (룸 10개) 4층 (주택) ☆ 농성역 부근, 서구 키지사 부근	
3. 전남 화순 (토2233평,건1440평) (롯데슈퍼마트) 감정가 77억 → 최저가 27억 8천 →1층(판매장,사무실) 2층(판매장,사무실등) ☆롯데슈퍼마트,키즈카페,파리바게트등등	
4. 동구수기동 (토130평,건320평) 감정가 10억7천만 → 최저가 6억 11층 (생활시설,창고) 2층~3층(소매점) 4층~5층(사무실)	
5. 북구 유동 (토 240평, 건 818평) 감정가 24억3천만 → 최저가 17억 1층(점포) 2층~5층(사무실) 지하(주차장)	

※ 외 다수 물건있음 (5천만~100억)

수익성 상가 (근린시설,통건물)

① 수원지구 (우미린A.P.T 앞) 4층건물 (대지 144평,건 280평)	→ 매가 17억
②상무지구 5층건물 (우리은행) 금융가뒀 (월수익 1,000만 ~ 보2억,용6억)	→ 매가 20억
③ 상무지구 상가 5층건물 (롯데마트앞)	→ 매가 28억
④광산구 월계동 1층상가 매매 (40평) (보 8백,월 80만) (용 4천)	→ 매가 1억5천만
⑤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6층 (45평) (보 1천,월90만) (용 5천)	→ 매가 1억1천만

010-7384-7800

수익성 상가 매매 (근린상가)

① 나주 삼영동 2층 상가 매매 (나주혁신도시 10분,나주시청2분) (보2천,월200만)	→ 매가 3억
② 상무지구 정연 오피 3층 (30평) 한국은행 앞	→ 매가 1억 3천만
(보1천,월60만) 임대완료	
③상무지구 수림 오피 6층 (23평) 롯데마트앞,상무나이트 옆 (보5백,월 45만- 임대완료)	→ 매가 8천 5백만
④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9평) 롯데마트 앞,상무나이트옆 (용4천)(보5백,월 42만)	→매가 7천5백만
⑤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롯데마트앞,상무나이트옆 (용2천)(보3백,월33만)	→매가 4천5백

수익성 상가 매매 (근린시설, 통건물)

①북구 중흥동 원룸 상가 (전대 정문2분,코너) (월수익 500만) (1층상가, 2개) (4층 주택) (2~3층-원룸 10개)	→ 매가 6억8천
②전대 정문 상가 원룸 매매(1층상가2개-투룸12개,원룸6개) (보4천5백,월720만)	→ 매가 7억8천만
③용평지구 원룸 (미래도 A.P.T 코너) 룸-20개 (엘리베이터 있음) 월수익 800만	→ 매가 11억
④ 광양 광명동 상가(A.P.T 12층(15평) 상가밀집지역,아파트단지 (보2백,월25만)	→매가 3천8백만
⑤서구 영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운전학원출구 3분 (용2천)(보3백,월32만)	→매가 3천6백만

010-6670-9800

062-382-5500, 010-6832-9700